

# 고흥 귀농·귀어인 전국 최대규모 지원

### 창업·주택자금 180억 확보...대상자 86명 선정 금리 연 2% 최대 3억...초기 안정적 정착 주력

고흥군의 귀농·귀어 창업정책이 전국 최대 규모의 지원액으로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은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어 창업자금 및 주거공간 마련 주택자금 지원 대상자 86명, 180여억

원의 전국 최대 규모로 확보해 선정·지원하고 있다.

고흥군은 전남도 한도 배정액 대비 귀농 440억원 가운데 79억2,000만원(17.9%), 귀어 310억원 가운데 100억 7,000만원(32.4%)을 확보하는 등 도내 최대 지원금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냈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3월부터 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예비 귀농·귀어인들에게 창업계획서 작성, 영농기술, 유통, 마케팅 컨설팅과 사업추진지, 용자상환 계획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흥에서 초기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전국에서 최대 귀농·귀어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면서 “앞으로도 지원대상자가 군민으로서 정착해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군비 6,500만원을 확보해 귀농·귀어 창업자금 지원대상자의 역귀향을 예방하고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5년 차에게(5년 거치, 10년 균할분등상환, 연 2%) 정부국고융자 이자차액 2% 중 1% 이자를 군비로 이차보전해줌으로써 귀농·어인들의 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해양경찰교육원은 최근 총훈탑 앞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4인의 해양경찰관에게 5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해양경찰교육원 제공



곡성군이 지난달에 이어 지자체와 농협, 주민이 함께하는 ‘꽃 소비 릴레이’를 이번달에도 계속한다. /곡성군 제공

## 해경교육원, 헬기 추락 순직 경찰관 5주기 추모식

해양경찰교육원이 최근 여수시 오전동 해경교육원 내 국가현충시설인 총훈탑 앞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4인의 해양경찰관에게 5주기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은 사고 당시 순직경찰관들이 근무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총훈탑 참배와 헌화,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지난

2015년 3월 13일 신안군 가거도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조 헬기를 타고 이동하다 바다로 추락해 순직한 해양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해양경찰교육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안전한 해경교육원을 만들어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 곡성 ‘꽃 소비 릴레이’ 화훼농가 힘 보탠다

곡성군이 지자체와 농협, 주민이 함께하는 ‘꽃 소비 릴레이’를 3월에도 계속 이어 간다.

지난 2월에 시작한 장미꽃 사주기에 이어 3월 릴레이 꽃으로는 알스트로메리아가 더해졌다. 근래에 알스트로메리아 꽃이 출하되면서 판로처가 막힌 농가를 돕기 위해 두 종류의 꽃을 함께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곡성군에서도 코로나19 여

파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지난 2월에 이어 꽃 소비 릴레이를 다시 시작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한 단에 만원인 장미꽃과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알스트로메리아 덕분에 적은 금액으로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아름다움을 나눴으면 한다”라고 독려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 곡성 기차마을 ‘낭만공방’ 특화거리 조성

### 협동조합 창립총회...도자기·미술작가 등 입주

곡성군 기차마을 인근 낙동원로가 낭만공방이라는 특화거리로 재탄생하기 위한 출발선을 끊었다.

곡성군은 낭만공방 사업 참여자들이 최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방거리 활성화 위한 협동조합 설립절차에 들어갔다.

낭만공방은 곡성을 낙동원로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6070 낭만곡성 영화로 청춘어람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창업자들을 선발해 점포 리모델링, 임대료,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곡성군은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도자기, 미술, 클레이, 매듭, 꽃

차 등 8명의 공방가족을 선정했다.

창립총회에서는 공방 창업주 8명이 전원 참여해 (가칭)곡성 낭만공방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새로운 정관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이들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거쳐 4월 이내에 조합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공방 사업자의 성공적인 창

업을 도와 공방거리를 지역 명물로 키워 간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업자들이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곡성 낭만공방 예비협동조합 조일복대표는 “각자 가진 재료의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비빔밥 속 참기름처럼 뜻을 함께 하는 낭만공방 창업주들 사이에서 참기름 역할을 잘 해내 공방의 화합과 낙동원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 ‘스카이큐브’ 대승적 결단 필요하다

### 기지수첩



김근중 본부장  
동부취재본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운영 중인 스카이큐브(경전철) 사업에 대한 순천시와 ㈜에코트렌스 간 갈등을 놓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시한 화해권고안에 대한 양측의 최종 입장이 전달됐다.

요구사항이 달라 중재원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졌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서로의 충분한 입장이 전달된 만큼 5월에는 스카이큐브 갈등이 최종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순천만 국가정원의 성공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던 지자체가 예상 상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는 사실은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였다.

하지만 시작과는 달리 순천시와 스카이큐브 운영사인 ㈜에코트렌스가 서로 ‘네 탓’ 공방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고 마침내 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하게 됐다.

당초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간 4.62km 구간을 40여대의 경전철을 운영하는 스카이큐브 사업을 포스쿠가 자회사를 설립한 뒤 30년간 운영

한 후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협약서 불이행 등 순천시에 귀책 사안이 많으며 에코트렌스가 조기 무상 기부채납을 순천시에 요구했

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지 시 지급금 1,367억원을 요구하는 중재안을 제출했다.

이에 순천시는 조기 채납하는 스카

이큐브 사업은 필요치 않다며 사업을 조기 철수할 경우 ‘월거비 200억+a’를 요구하는 반대 신청을 냈다.

양측 모두 현명하지 못한 감정적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순천만 국가정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매년 500여만명의 관광객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를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나 대기업의 이미지를 고려한다면 강제력이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보다는 순천

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에 최종 의견을 전달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더욱 실감난다.

지자체나 기업이 이익과 자존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나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운영되는 하늘 택시 스카이큐브 사태가 판정보다는 합의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대해본다.

## 순천대,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17억 수주

### 중견 연구 분야 5개 선정

순천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 ‘2020년 상반기 개인 기초연구사업 중견 연구 분야’에 5개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개인 기초연구사업’은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집단 단위 및 기반 구축 연구 지원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적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 역량을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순천대는 이 사업 중 중견 연구 분야로 총 13개 과제를 신청해 5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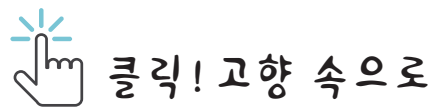
이 사업에 선정된 순천대 연구책임자들

은 과제별 3-4년간 총 17억여원을 지원

받는다 ▲유충 발효추출물에 대한 대체 단백질 기능 검증 ▲염류역 역행신호전달 연구 ▲새로운 상수분지수 그래프 설계 ▲암줄기세포 표적 치료 ▲고성능 구조재료 개발용 플랫폼 구축 등에서 활발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해제선 순천대 산학협력단장은 “개인 기초연구사업 중견 연구 분야에서 우리 대학의 선정률이 38%로 매우 높은 것은 순천대 교수진의 뛰어난 연구 역량을 입증한 것”이라며 “연구책임자들이 선정과제의 충실한 수행을 통해 창의성 높은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해 리더 연구자로서 성장 발판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클릭! 고흥 속으로



## 순천대-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협약

순천대학교는 최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콘텐츠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리쇼어링 프로젝트 지원 ▲전남 애니메이션센터 입주를 위한 시설 인프라 지원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국내외 애니메이션사 취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영진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인력양성의 메카로 자리 잡아 순천시 인구 유입 및 청년 희망마이크로 순천대가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 고흥 취약계층 청소년 생필품 지원

고흥군은 최근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손세정제, 햇반 등 10여종의 식료품을 포함한 생필품을 지원했다.

이번 물품 지원은 사랑의 열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지원 배분 사업의 일환으로 (사)한국BBS광주전남연맹고흥군지회(정소년유해환경감시단)가 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특별지

원 및 사례 관리 대상자 등 취약계층 청소년 52명의 가정으로 직접 배급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개·입학이 연기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 많은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적절한 지원으로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진중언 기자



## 보성 ‘도민안심식당’ 22곳 지정 운영

보성군은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란히 나란히 도민안심식당’을 지정해 본격 운영에 나섰다.

나란히 나란히 도민안심식당은 한 방향으로 나란히 앉아서 식사하는 좌석배치와 1인 1찬기 및 앞 접시 사용이 핵심이며, 고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거리 유지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무화, 개인 찬기 사용과 앞 접시에 음식 덜어먹기를 중점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군정사 구내식당을 필두로 군내 모범 음식점 22개소가 시범적으로 도민안심 식당으로 지정됐다.

군 관계자는 “희망 업소들을 대상으로 안심식당을 점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